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인간의 섭생과 트라우마*

조 윤 정**

- I. 들어가며
- II.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트라우마
- III. 프로이트의 죽음충동과 영혜의 식물되기
- IV. 나오며

• 국문초록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3부작으로 이뤄진 한강의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는 주로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여성과 남성, 채식과 육식, 비폭력과 폭력 등을 이분화시키며 『채식주의자』가 담고 있는 다양한 담론을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기존 시각에서 영혜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로서, 강압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육식을 거부하고 식물되기를 시도하는 것이라 분석되지만 필자는 트라우마 이론을 통해 기존 비평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트라우마 이론은 가해자의 트라우마에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6일 <2016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Urban Forest and Environmental Humanities> 학회와 2016년 12월 2일 <음식과 인문학> 학회에서 발표했던 발표문들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시달리는 영혜의 모습을 통해 섭생을 해야만 하는 인간 본질적 차원에서는 영혜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채식주의자』는 이데올로기 문제 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폭력성을 다루는 작품으로 확장된다.

본고는 트라우마 이론 중에서도 캐시 커루스의 이론을 대입하여 충격, 이해불가능성, 잠복기, 반복되는 꿈이나 환영, 그리고 깨어남 등 다섯 가지의 단계를 통해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영혜의 트라우마를 분석한다. 또한 작품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혜의 식물되기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죽음충동 이론을 대입하여 영혜가 식물되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 작품이 영혜 개인의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고 있다는 보편적 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독자들 또한 영혜의 트라우마를 함께 공유하며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그녀의 트라우마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한강, 채식주의자, 트라우마, 캐시 커루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죽음충동

I. 들어가며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3부작으로 이뤄진 한강(1970~)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2007)는 2016년 맨부커 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하며 대중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평단에서는 한강과 『채식주의자』에 대한 연구가 그 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주로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찬규·이은지는 “‘고기’는 가정 내 아버지의 지배를 의미하며, 고기에 대한 거부는 가부장제하의 아버지의 지배에 대한 거부를 상징한다”¹⁾며 한강의 작품에 나타나는 육식에 대한 거부를 남성의 폭력적 권력에 대한 저항과 결부시켜 연구한다. 또한 김재경은 『채식주의자』가 “지배층의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부인하고, 여성성과 수평성에 대한 경외심을 지지하고 있다”²⁾며 육식과 남성성, 채식과 여성성을 대립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측면은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까지 받은”³⁾ 아버지가 주인공 영혜에게 행하는 폭력과 육식에 대한 강요를 통해 잘 드러난다. 『채식주의자』에 이와 같은 측면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작가가 여성, 채식, 비폭력을 남성, 육식, 폭력과 대립시키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권위적 폭력성을 비판하는 것 또한 자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가는 단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혜는 다른 생물을 죽여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낀다. 이것은 생명 본질 자체의 문제이지 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영혜가 단지 사회의 폭력성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에 저항해야지, 극단

1) 이찬규·이은지, 「한강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46, 2010, 51쪽.

2)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252쪽.

3)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38쪽.

적인 자기 파괴적 섭생 거부를 할 이유는 없다. 영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넘어 인간의 섭생으로 인한 본질적 폭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트라우마 이론을 통해 기존 비평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혜가 왜 트라우마에 걸렸는지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로 이분화된 기존 비평을 넘어 작품을 더욱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트라우마 이론은 영혜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음으로써 가해자의 트라우마에 걸렸다는 사실을 통해 그녀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존 비평에서 영혜는 폭력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피해자이지만 트라우마 이론은 인간이라는 집단의 차원에서는 영혜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데올로기를 넘어 인간 본질의 문제로 시야를 확장시킨다.

이 작품 뒤에 실린 해설에서 한강의 작품 속 인물들을 각기 자신의 “트라우마와 조우”⁴⁾하는 인물들로 해석하듯이, 한강의 여타 다른 작품들 처럼 『채식주의자』 또한 영혜의 “치명적인 상흔”⁵⁾ 즉 트라우마를 다루는 작품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어린 시절 기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를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없으며,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작품을 분석한 논문들도 필자가 쓰고자 하는 것과는 방향을 달리 한다. 방정민과 정미숙은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욕망 이론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는데, 방정민은 특히 「몽고반점」에 나타나는 영혜와 형부 사이의 “욕망과 에로티시즘의 상관관계”⁶⁾에 주목하고, 정미숙은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의 서사를 차례로 따라가며 “우리의 욕망과 실존이 가족과 현실의 굴레, 윤리비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⁷⁾임을 강조한다. 우미영은 조금 방향을 달리 하여 “한강의 소

4) 허윤진, 「해설: 열정은 수난이다」,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40쪽.

5) 앞의 글, 240쪽.

6) 방정민, 「한강 소설, 『몽고반점』 연구: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에로티시즘과의 상관관계 연구」, 『융복합인문논총』 45, 2014, 78쪽.

설에서 여성 주체는 기존의 남성/여성의 이분화된 정체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양자의 항을 복합적으로 내면화하면서 자기를 구성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배이데올로기와의 복종/거부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주체화⁹⁾하는 한강의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을 우울증적 주체로 분석한다. 이 논문들과 달리 한귀은은 『채식주의자』를 “이전의 상처에 관한 서사를 응축시켜놓은 작품”¹⁰⁾으로 분석하며 작품의 외상(trauma)적 면모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 논문 역시 소설 속 인물들의 실패하는 치료자로서 환자에게 역전이되는 작가에 주목하며 필자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채식주의자』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 논문들 중에서도 아직 트라우마 이론을 구체적으로 대입한 논문은 없는데, 필자는 본격적으로 트라우마 이론을 적용하여 이 작품에 어떻게 트라우마의 패턴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트라우마 이론을 대입했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트라우마 이론 중에서도 특히 캐시 커루스(Cathy Caruth)의 트라우마 이론을 대입하여 이 작품이 섭생을 해야만 하는 인간의 삶 자체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채식주의자』에 나타나는 트라우마

앞서 지적했듯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영혜가 트라우마에 걸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혜에게 트라

-
- 7) 정미숙, 「욕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욕망 분석」, 『코기토』 5, 2008, 8쪽.
 - 8)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2013, 454쪽.
 - 9) 앞의 논문, 476쪽.
 - 10)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 -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43, 2008, 292쪽.

우마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영혜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패턴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트라우마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트라우마는 “신체에 난 상처”¹¹⁾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지만,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쾌락원칙을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1961)¹²⁾에서 “외상성 신경증”¹³⁾을 “심각한 기계적 충격, 철도 사고,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기타 사고를 겪은 후에 발생하는 …… 상황”¹⁴⁾으로 설명한 이후 트라우마는 “신체가 아닌 정신에 난 상처”¹⁵⁾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다. 커루스는 이렇게 프로이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신적 외상으로 명명된 트라우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더욱 자세히 정리한다.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 트라우마는 급작스럽거나 파국적인 사건의 압도적인 경험을 뜻한다. 사건에 대한 반응은 많은 경우 지연되고, 통제할 수 없는 반복적인 환영이나 침입하는 현상들로 나타난다. …… [트라우마는] 완전히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일찍, 예상치 못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악몽이나 생존자의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그 존재를 드러낼 때 까지는 지각할 수 없다.

In its most general definition, trauma describes an overwhelming experience of sudden or catastrophic events in which the response to the event occurs in the often delayed, uncontrolled repetitive appearance of hallucinations and other

-
- 11)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 3, “an injury inflicted on a body”. 이후 캐시 커루스 저서/편집서는 모두 필자 번역.
 - 12) 영문 번역본은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James Strachey, Trans. and Ed.,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and Company, 1961 참고. 한글 번역본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참고. 이후 인용은 원서의 쪽수로 표기.
 - 13) Ibid., p. 10, “traumatic neurosis”.
 - 14) Ibid., p. 10, “A condition …… which occurs after severe mechanical concussions, railway disasters and other accidents involving a risk to life”.
 - 15) Cathy Caruth, op. cit., p. 3, “a wound inflicted not upon a body but upon a mind”.

intrusive phenomena.¹⁶⁾ …… [Trauma] is experienced too soon, too unexpectedly, to be fully known and is therefore not available to consciousness until it imposes itself again, repeatedly, in the nightmares and repetitive actions of the survivor.¹⁷⁾

이러한 커루스의 정의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충격(shock), 이해불가능성(incomprehensibility), 잠복기(incubation period), 반복되는 꿈이나 환영(repeated dreams or hallucinations), 그리고 깨어남(awakening) 등 약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요약된다. 즉,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그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은 사람은 사건을 보고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불가능성의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이해되지 못한 채 잠재의식 속에 억눌려있던 트라우마적 기억은 특정한 계기로 인해 갑자기 꿈이나 환영 등의 형태로 반복되는데,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던 트라우마적 경험은 깨어남을 통해 비로소 이해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깨어남은 트라우마의 숨겨진 원인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¹⁸⁾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치유되도록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잊고 싶었던 진실을 깨닫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은 『채식주의자』 속 영혜가 어린 시절 자신을 문 개를 잡아먹었던 죄책감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반복적으로 꿈을 꾸며 육식을 거부하고, 종국에는 식물이 되고자 하는 과정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본고는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이 『채식주의자』에 어떻게 대입되는지 차례로 살펴봄에 트라우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혜의 식물되기가 왜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결과인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16) Ibid., p. 11.

17) Ibid., p. 3.

18) 지금부터 쓰이는 피해자라는 표현은 가해자/피해자의 피해자가 아닌, 트라우마 피해자를 지칭한다.

1. 충격

먼저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는 첫 번째 요소는 충격이다. 트라우마적 경험은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슬픈 경험이 아니라 정신의 “방어막”¹⁹⁾을 무너뜨릴 정도로 일상성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경험이다. 인간의 의식에는 외부의 자극을 필터링하여 받아들이는 방어막이 존재하는데, 충격적인 트라우마적 경험은 기존의 방어막을 뚫고 인간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침입하여 정신에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커루스는 충격의 원인으로 “놀람”²⁰⁾을 제시한다. 커루스에 따르면 그러한 충격은 자극의 양이 아니라 놀람, 즉 너무나 급작스러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놀람은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²¹⁾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에게 훗날 트라우마를 일으킨 충격적인 경험은 바로 그녀가 아홉 살 때 키우던 개를 잡아먹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도살 과정의 잔인함과 도살된 개를 먹음으로써 다른 이들과 함께 개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온다.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러웠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 다섯 바퀴째 돌아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낄낄 대며,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여섯 바퀴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곳곳이 서서 지켜봐. 일곱 바퀴째 나타날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축 늘어진 녀석을 오토바이 뒤에 실은 아버지가 보여.

19) Cathy Caruth, op. cit., p. 61, “a protective shield”.

20) Ibid., p. 62, “fright”.

21) See Ibid., p. 62.

녀석의 덜렁거리는 네 다리, 눈꺼풀이 열린, 핏물이 고인 눈을 나는 보고 있어 …… 개에 물린 상처가 나오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입을 떠 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²²⁾

아홉 살이던 영혜는 무방비로 잔인한 도살 장면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는데,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그녀가 이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영혜는 십 수 년이 지난 후에도 도살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 당시 자신이 목격한 장면과 개를 먹었을 때의 경험을 사진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여 달리던 개가 차츰 어떻게 죽어갔는지, 영혜는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끔찍하게 변해가던 개의 상태를 디테일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충격적인 경험이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코크(Bessel A. Van Der Kolk)와 하트(Onno Van Der Hart)는 일상적 기억과 트라우마적 기억을 구분한다. 그들에 따르면 일상적이고 친숙한 경험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의식적 자각 없이도 완전히 이해되어 기존의 인식 체계 속에 손쉽게 저장되는 반면에, 트라우마적 기억은 기존의 어떠한 인식 체계로도 분류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생생함”²³⁾으로 기억되며 기존의 의식 체계가 아닌 의식의 다른 곳에 저장된다고 지적한다. 즉, 일상적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지는 못하

22) 한강, 『채식주의자』, 52~53쪽.

23) Bessel A. Van Der Kolk and Onno Van Der Hart, “The Intrusive Past: The Flexibility of Memory and the Engraving of Trauma”,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 160, “particular vividness”.

는 것과 달리, 트라우마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수 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당시의 장면을 사진처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커루스 또한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트라우마적 기억은 “생생하고 정확한 사건의 귀환”²⁴⁾이며,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정밀”²⁵⁾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디테일한 개의 도살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영혜를 통해 처참하게 죽어가던 개의 모습이 그녀에게 일상성을 넘어서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몇 바퀴를 돌았을 때 개가 피거품을 토했는지, 개의 눈빛이 어땠는지, 개가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개의 다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개를 자신이 어떻게 먹었는지, 요리의 냄새가 어땠는지, 이 모든 세세한 기억을 통해 당시의 장면이 그냥 놀라운 것을 넘어 영혜에게 트라우마적 사건이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끔찍한 도살 장면을 목격한 직후 흰둥이를 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라고 말한다. 영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놀람은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은 트라우마의 두 번째 특징인 이해불가능성으로 연결된다.

2. 이해불가능성

이해불가능성이란 트라우마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당사자가 사건을 겪는 순간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

24) Cathy Caruth, “Recapturing the Past: Introduction”,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 152, “the vivid and precise return of the event”.

25) Ibid., p. 151, “absolutely accurate and precise”.

한다. 커루스는 “[트라우마적] 사고는 …… 단순히 [트라우마적] 충돌의 폭력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사건의 이해불가능성이라는 효과를 일으킨다. 다시 되돌아와 [트라우마]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 단지 폭력적 사건의 상황 뿐 아니라 그 폭력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²⁶⁾라고 설명한다. 즉, 트라우마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인데도 해당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자신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봤는지,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을 직접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마비”²⁷⁾상태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도리 럽(Dori Laub)의 「진실과 증언」(“Truth and Testimony”, 1995)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럽(Dori Laub)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Holocaust) 사건을 예로 들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는 증인이 없다”²⁸⁾고 주장한다. 럽은 “증언이란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²⁹⁾이라고 설명하는데, 증인들은 바로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증언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사건 안에 있음으로써*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³⁰⁾ 그 자체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커루스가 지적했던 사건 당시의 마비상태로, 럽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집단적 망상의

26) Cathy Caruth, *UE*, 1996, p. 6, “The accident …… does not simply represent the violence of a collision but also conveys the impact of its very incomprehensibility. What returns to haunt the victim …… is not only the reality of the violent event but also the reality of the way that its violence has not yet been fully known”.

27) Cathy Caruth, “Trauma and Experience: Introduction”,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 6, “numbing”.

28) Dori Laub, “Truth and Testimony: The Process and the Struggle”,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 65, “during its historical occurrence, the event produced no witness”.

29) *Ibid.*, p. 65, “A witness is a witness to the truth of what happens during an event”.

30) *Ibid.*, p. 66, “circumstances of *being inside the event* that made unthinkable”.

비밀스러운 공유”³¹⁾를 지적한다. 여기서 집단적 망상이란 집단 안에 공유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써, 럽은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데올로기의 힘에 주목한다. 즉,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는 사람들은 사건 당시 집단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건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럽은 “궁극적으로 부족한 것은 …… 인간의 인지 능력”³²⁾임을 지적하며 이것이 개인이 아닌 인간 자체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한다. 럽의 주장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회적 사건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트라우마적 사건 당시의 이해불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혜의 트라우마를 잘 설명해준다.

영혜를 문 개가 아버지에게 의해 끔찍한 방법으로 도살당하고 요리되어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영혜 또한 그 개를 먹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는 당시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각 장면마다 촘촘히 새겨져 있다. 주인집 딸을 문 개를 죽이는 것, 개의 꼬리털을 태워 종아리의 상처에 붙이는 것, 그 개를 잡아먹는 것, 개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개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달리게 하는 것, 그리고 개에 물린 상처가 나오려면 그 개를 먹어야 한다는 것 등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행해지지만 누구도 그것의 폭력성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다. 지젝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2008)에서 지적하듯,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 환영”³³⁾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31) Ibid., p. 67, “the secret sharing of a collective delusion”.

32) Ibid., p. 69, “what was ultimately missing …… but in the human cognitive capacity”.

33)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New York: Verso, 2008, p. 30, “unconscious illusion”.

원래부터 행해졌던 삶의 보편적 진리인 듯 보이지 않게 작동하기 때문에 한번 이데올로기에 편입되고나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범한 일상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흰둥이에게 가해진 폭력을 있는 그대로 보면 누가 봐도 잔인한 폭력 행위지만, 폭력적 이데올로기에 마비된 내부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흰둥이를 먹었을 당시 아홉 살이던 영혜 또한 당시에는 그 사건의 폭력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나는 꿈쩍 않고 문간에 서서 점점 지쳐가는, 혈떡이며 눈을 희번떡이는 흰둥이를 보고 있어. 번쩍이는 녀석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난 더욱 눈을 부릅떠. 나쁜 놈의 개, 나를 물어? ……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곳곳이 서서 지켜봐”³⁴⁾라는 영혜의 회상에서 그녀는 개에게 가해지는 폭력성과 잔인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당시에는 그 사건의 잔혹성을 깨닫지 못했던 그녀는 처참하게 죽은 개를 “밥을 말아 한 그릇 다 먹”을 뿐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라며 사건의 폭력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물론 그녀의 나이가 아홉 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트라우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사건 당시의 이해불가능성을 뜻한다. 그렇기에 영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지켜보고 결국 그 개를 먹음으로써 잔혹한 폭력 행위에 동참하면서도, 그리고 그 잔인함에 충격을 받는데도 자신이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폭력 행위를 보면서 그것이 폭력인지 모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에 따라 피거품을 쏟을 때까지 뛰는 개를 바라보고,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는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내부자이기 때문에 개를 다루는 폭력성을 보지 못한다.

34) 한강, 『채식주의자』, 52~53쪽.

3. 잠복기

이렇게 트라우마적 사건에 증인이 없다면, 그 사건은 언제까지나 목격되지 못하는 채로 남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모세와 유일신론』(*Moses and Monotheism*)에서 “실제 사건과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잠복기라고 부른다”³⁵⁾라며 잠복기를 거친 뒤늦은 깨달음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커루스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프로이트는 아직 [트라우마적] 경험의 효과가 나타나는 때는 아니지만, ‘잠복기’라는 단어를 통해 트라우마를 사건 발생부터 억압이 회귀하기까지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³⁶⁾고 설명한다. 트라우마와 증언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는 럽 또한 “오직 사건은 *뒤늦게서야* 역사적으로 목격되고 이해될 수 있다”³⁷⁾고 강조한다. 즉, 사건 당시의 이해불가능성으로 인해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은 사람은 즉시 그 일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지만, “사건에 내제된 잠복기”³⁸⁾를 거친 후 억압된 경험이 돌아오면 자신이 겪은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그제서야 자신이 트라우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은 사람도 사건 당시에는, 그리고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때 까지는 자신이 트라우마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무런 증상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잠복기는 트라우마에 대한 “투명한 암시”³⁹⁾를 나타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35) Sigmund Freud, *Moses and Monotheism*, Katherine Jones, Trans., New York: Vintage, 1955, p. 84, “The time that elapsed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first appearance of the symptoms is called the “incubation period””.

36) Cathy Caruth, “TE”, 1995, p. 7, “Freud seems to describe the trauma as the successive movement from an event to its repression to its return”.

37) Dori Laub, op. cit., p. 69, “it is only now, *belatedly*, that the event begins to be historically grasped and seen”.

38) Cathy Caruth, *UE*, 1996, p. 17, “inherent latency of the event”.

39) Sigmund Freud, *MM*, 1955, p. 84, “a transparent allusion”.

영혜의 트라우마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홉 살에 개를 잡아먹었던 기억이 십 수 년이 흐른 뒤에야 그 폭력성을 깨닫는 형태로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남편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피 웅덩이에 비친 얼굴의 꿈을 꾸고 난 후부터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⁴⁰⁾라며 육식을 거부하는데, 그 전까지 그녀는 “불판에 얹힌 갈비를 익숙한 솜씨로 뒤집었고, 한 손에 집게를, 다른 한 손에 큰 가위를 들고 쓱쓱 잘라내는 품이 듬직”⁴¹⁾했던 아내였다. 아홉 살에 기르던 개를 잡아먹고도 십 수 년 동안 육식을 하던 그녀가 갑자기 꿈 때문에 육식을 거부하게 된 것은 트라우마의 특징 중 하나인 잠복기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반복되는 꿈

잠복기를 거친 트라우마적 경험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때 까지 꿈, 환영 등의 형태로 반복된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적 경험은 왜 꿈이나 환영 등의 형태로 반복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왜 “억압의 회귀”⁴²⁾라고 부르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트라우마적 경험은 왜 억압되는가? 프로이트는 최초의 억압을 어린 시절의 리비도적 욕망과 연결지며 주체는 실패와 좌절의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억압시킨다고 설명한다.⁴³⁾ 즉, 트라우마적 경험은 피해자에게 즐거운 기억이 아닌 “원치 않는 생각과 욕망”⁴⁴⁾이기 때문에 잊혀지지만, 일상성을 넘어서는 충격적 경험이기 때문에 완

40) 한강, 『채식주의자』, 30쪽.

41) 한강, 『채식주의자』, 21~22쪽.

42) Sigmund Freud, *MM*, 1955, p. 160, “the return of the repressed”.

43) See Sigmund Freud, *BPP*, 1961, pp. 20~23.

44) Sean Homer, *Jacques Lac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 12. 번역은 선 호머 저,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참고. 이후 인용은 원서의 쪽수로 표기, “unwanted thoughts and desires”.

전히 잊혀지지 않고 억압된 형태로 피해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트라우마적 경험은 무의식 속에서 “상징화 될 수 없는”⁴⁵⁾ 것으로 억압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언어 등 상징계(the Symbolic order)의 기호가 아니라 꿈, 환영 등 비언어적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인 기억처럼 평소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트라우마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특정한 상황”⁴⁶⁾을 통해 시작되는데, 꿈, 환영 등의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트라우마 피해자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거나 통제할 수 없다”⁴⁷⁾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트라우마적 경험은 “사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⁴⁸⁾ 그 의미를 알 때까지 꿈으로 반복된다.

『채식주의자』의 영혜에게도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아홉 살에 흰둥이를 잡아먹은 후에도 평범하게 육식을 하며 살던 영혜는 어느 날 갑자기 개를 잡아먹었을 당시 그녀에게 새겨진 가해자로서의 폭력성을 특정한 계기를 통해 깨닫게 된다. 어느 때처럼 고기 요리를 하던 영혜는 남편의 재촉에 서두르다가 실수로 요리에 식칼 조각을 넣게 되고, 불고기를 먹던 남편이 식칼 조각을 삼킬 뻔 한 것이다. 영혜는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 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 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 다음 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의 피웅덩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건”⁴⁹⁾ 이라며 남편의 음식에 식칼 조각을 넣었던 사건을 계기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우미영 또한 이 사

45) Ibid., p. 84, “unsymbolizable”.

46) Bessel A. Van Der Kolk and Onno Van Der Hart, op. cit., p. 163, “particular conditions”.

47) Cathy Caruth, “RP”, 1995, p. 151, “inaccessible to conscious recall and control”.

48) Cathy Caruth, *UE*, 1996, p. 62, “to attempt to master what was never fully grasped in the first place”.

49) 한강, 『채식주의자』, 27쪽.

건이 영혜에게 “자기 안에 내제된 폭력성”⁵⁰⁾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 그녀는 갑자기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된다.

…… 거적때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있는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깃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⁵¹⁾

첫 번째 꿈에서 그녀는 날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낡은 헛간에 들어가 얼굴에 핏물을 묻히며 날고기를 씹는데, 그 곳에서 그녀는 “피웅덩이에 비친 내 눈”과 마주친다. 그리고 또 다시 그녀는 꿈을 꾸는데, 이번에 그녀는 꿈속에서 삼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수 없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⁵²⁾이는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꿈속에서 그녀가 마주치는 피 웅덩이에 비친 눈은 그녀 자신의 눈이며, 또 다른 꿈속에서 그녀는 폭력 행위자의 위치에 선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의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거품을 쏟을 때 까지 달리다가 지쳐 쓰러져 죽은 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특히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그 개를 먹어야 한다는 말에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라며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던 죄책감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다가 몇 십 년

50)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464쪽.

51) 한강, 『채식주의자』, 18~19쪽. 필자 강조.

52) 앞의 책, 36쪽.

이 지난 후 변형된 형태로 꿈속에서 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그녀에게 트라우마적 기억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남편이 물어보았을 때에도 단지 “꿈을 꿴어”⁵³⁾ 라고 말할 뿐이다. 언어적 형태로 표현될 수 없는 그녀의 트라우마는 꿈이라는 비언어적 형태로 반복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첫 번째 꿈을 꾸고 난 직후 육식을 중단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꿈을 꾸고, 그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그녀는 잠복기를 거쳐 억압되었던 기억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정확히 자신의 꿈의 의미와 트라우마의 원인을 깨닫지는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깨어남

이렇게 의미를 모른 채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의 꿈을 꾸던 영혜는 형 부와의 관계를 통해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라캉은 『세미나XI』(*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1998)에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 1913)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한다. 라캉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열병으로 아이를 잃은 후 아이가 등장하는 꿈을 꾸는 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의 꿈을 “욕망의 실현”⁵⁴⁾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꿈속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꿈은 욕망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러한 해석으로는 아버지의 깨어남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아버지를 깨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꿈속의 또 다른 현실이 아닌가?*”⁵⁵⁾라고 질문한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아이의

53) 앞의 책, 16쪽.

54) Jacques Laca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of Psychoanalysis*, J.-A. Miller, Ed., Alan Sheridan, Trans., New York and London: Norton & Company, 1998, p. 57, “the realization of a desire”.

55) Ibid., p. 58, “*What is it that wakes the sleeper? Is it not, in the dream, another reality?*”.

사망이라는 피하고 싶은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꿈 때문이기 때문에, 꿈은 오히려 원치 않는 현실을 재현하는 장소로써 아버지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진실(아이의 죽음)에 눈을 뜨는 과정을 겪게 된다. 즉, 깨어남을 통해 피하고 싶었던 트라우마적 경험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몰랐던 꿈의 의미, 진실을 깨달으며 죽음충동(death drive/Todestrieb)⁵⁶⁾을 겪게 된다.⁵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커루스 또한 “악몽의 트라우마는 단지 꿈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꿈에서 깨는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⁵⁸⁾고 주장하며 깨어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적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충동에 주목했다.

이러한 패턴은 영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영혜는 남편의 음식에 실수로 식칼 조각을 넣은 이후 피 웅덩이에 비친 얼굴의 꿈을 꾸게 되고, 그 이후로 육식을 중단한다. 하지만 그 뒤에도 영혜는 “커다란 흡입으로 머릴 쳐서 죽”⁵⁹⁾이거나, “파헤쳐진 두개골”⁶⁰⁾ 등이 등장하는 피, 시체, 폭행, 살해와 관련된 꿈을 반복해서 꾸다. 즉, 특정한 계기를 통해 억눌려있던 과거의 경험이 변형된 꿈의 형태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영혜는 아직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는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 영혜가 트라우마적 진실로 깨어나는 단계는 이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혜는 형부와의 관계를 통해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영혜는 어떻게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는가?

56) 독일어 Todestrieb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죽음충동(death drive)과 죽음본능(death instinct) 두 가지로 번역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오늘날 더 널리 쓰이는 용어인 죽음충동을 사용하였다.

57) See Jacques Lacan, op. cit., pp. 57~60.

58) Cathy Caruth, *UE*, 1996, p. 64, “the trauma of the nightmare does not simply consist in the experience *within* the dream, but in *the experience of waking from it*”.

59) 한강, 『채식주의자』, 36쪽.

60) 앞의 책, 43쪽.

형부와의 관계에서 영혜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첫 번째는 형부가 자신의 몸에 꽃 그림을 그린 후 더 이상 끔찍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디오 아트를 하는 아티스트인 형부는 성인이 된 영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몽고반점에 매력을 느끼는데, 그는 몽고반점에서 성적인 것이 아니라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 흔적”⁶¹⁾을 느끼며 영혜가 가진 “식물적인 무엇”⁶²⁾을 꿰뚫어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몽고반점을 통해 영혜가 지닌 식물성을 느낀 형부는 그녀의 몸에 꽃을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이 경험은 영혜에게 중요한 변화를 불러온다. 영혜는 형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⁶³⁾라고 말한다. 첫 번째 꿈을 꾸 이후 즉시 육식을 중단했는데도 계속 폭력적인 꿈에 시달려 왔다는 것은 영혜의 꿈이 고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랬던 영혜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된 것은 형부가 영혜의 몸에 꽃 그림을 그린 이후부터이다. 영혜는 몸에 그린 꽃 그림을 지웠냐는 형부의 질문에 지우지 않았다고 답하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지 않아요.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다시 그려주면 좋겠어요”⁶⁴⁾라고 말한다. 첫 번째 꿈을 꾸 직후 육식을 중단했는데도 계속해서 폭력적인 꿈을 꾸던 영혜는 형부가 자신의 몸에 꽃 그림을 그린 이후 비로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고기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혜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원인은 무엇인가? 형부가 그녀의 몸에 꽃 그림을 그리고 난 후부터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 식물이 되는 것 뿐임을 깨달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영혜는 단지 고기 때문이

61) 앞의 책, 101쪽.

62) 앞의 책, 101쪽.

63) 앞의 책, 142쪽.

64) 앞의 책, 118쪽.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섭생이라는 형태로 다른 생명의 목숨을 취해야만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은 것이다. 영혜에게 있어 형부는 바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부와의 관계를 통해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채식주의자』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은 주로 영혜와 형부의 성관계를 주이상스(jouissance)적으로 해석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상징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근친상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정미숙은 영혜와 형부의 관계가 “명백한 두 남녀의 성적 결합이고 둘은 함께 환희(jouissance)를 나눈다”⁶⁵⁾고 지적하며, 방정민은 영혜의 언니인 인혜가 “아이(처제)[영혜]의 욕망-주이상스-을 거세시킨다”⁶⁶⁾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주이상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딜런 에반스(Dylan Evans)에 따르면 주이상스는 현실 원칙인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을 넘어선 “고통스러운 쾌락”⁶⁷⁾으로, 에반스는 “쾌락원칙을 넘어선 결과는 더욱 많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다.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쾌락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⁶⁸⁾이라고 설명한다. 즉, 주이상스는 단순히 상징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쾌락이 아니라 상징계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쾌락을 극단으로 추구한 결과로써 고통이 수반되는 고통 속 쾌락이다. 하지만 영혜는 형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금기를 넘었다는 고통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다. 한귀은은 영혜가 “형부와의 성관계를 언니에게 들킴으로써 영원히 이해받지 못

65) 정미숙, 「욕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욕망분석」, 22쪽.

66) 방정민, 「한강 소설, 『몽고반점』 연구: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에로티시즘과의 상관관계 연구」, 76쪽.

67) Dylan Evans,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 92, “painful pleasure”.

68) Ibid., p. 92, “the result of transgressing the pleasure principle is not more pleasure, but pain, since there is only a certain amount of pleasure that the subject can bear”.

하게 됨으로써 그녀에게 또 다른 외상의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신을 더 억압하게 된다”⁶⁹⁾고 주장하지만 영혜는 형부와의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미 상징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영혜에게 있어서 형부와의 성관계 자체는 금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혜는 형부와의 성관계에서도 심리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영혜는 상대방이 형부라서가 아니라 단지 꽃을 그리고 있는 상대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관계를 한 대상이 형부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혜는 처음 본 남성인 J에게도 그가 몸에 꽃을 그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⁷⁰⁾라며 강한 성욕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니인 인혜에게 형부와의 성관계 사실을 발각당했을 때에도 영혜는 놀라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대신 “명한 얼굴”⁷¹⁾과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시선”⁷²⁾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다. 즉, 영혜에게 있어 형부와의 관계는 성적 쾌락이나 주이상스적 욕망이 실현된 관계라기보다 그녀가 식물이 되게 하고, 식물과 결합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영혜가 형부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보이는 중요한 변화는 한 번도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던 영혜가 형부와의 성관계 후,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이 대화에서 영혜는 형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제 꿈을 꾸지 않게 될까?”

……

69)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 -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295~296쪽.

70) 한강, 『채식주의자』, 131쪽.

71) 앞의 책, 146쪽.

72) 앞의 책, 146쪽.

“무슨 얼굴이지? 누구의 얼굴이야?”

“……늘 달라요. 어떨 땐 아주 낯익은 얼굴이고, 어떨 때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에요. 피투성이일때도 있고…… 썩어서 문드러진 시체 같기도 해요.”

……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내 뱃속 얼굴이라는 걸. 뱃속에서 부터 올라온 얼굴이라는 걸.”

……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⁷³⁾

영혜는 형부에게 꿈에 나오는 피투성이의 얼굴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임을 고백한다. 영혜를 괴롭혔던 꿈의 원인은 고기나 아버지, 가부장제 사회 때문이 아니라 개고기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자기 자신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고기를 먹이기 위해 영혜의 뺨을 때리는 아버지, “이상하고 무서운 여자”⁷⁴⁾라며 영혜를 버린 남편, “……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⁷⁵⁾라며 폭력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방관하고 수용하는 가족, 영혜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인혜 뿐 아니라 자신 또한 폭력의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영혜는 모든 인간적 섭생을 거부하고 식물이 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한, 섭생으로 인한 근원적 폭력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은 영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73) 앞의 책, 142~143쪽. 필자 강조.

74) 앞의 책, 55쪽.

75) 앞의 책, 50쪽.

형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꿈이 내포하고 있던 진실, 트라우마의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과 그것의 유일한 치유 방법은 인간의 섭생에서 자유로워져 식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식물이 되고자 하는 죽음충동을 겪는다. 그리고 그녀는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⁷⁶⁾을 보이며 서서히 소멸해간다.

Ⅲ. 프로이트의 죽음충동과 영혜의 식물되기

「나무불꽃」에서 인혜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영혜는 모든 종류의 섭생을 거부하고 식물이 되고자 하는데, 물론 사람이 식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녀의 식물되기는 필연적으로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영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네가! 죽을까봐 그리잖아!

영혜는 고개를 돌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이윽고 흘러나온 질문을 마지막으로 영혜는 입을 다물었다.

…… 왜, 죽으면 안되는 거야?⁷⁷⁾

영혜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인혜에게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라고 반문하며 모든 종류의 섭생을 거부하고 식물이 되고자 하는데 이는 프로이트의 죽음충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죽음충동은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죽음충동을 알기 위해서는 쾌락원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프로이트는 “의식의 영역 위로 솟아오르는 모든 정신·신체적 운동은 일정 영역을 넘어 완벽한 안정성에 접근해 가는데

76) Sigmund Freud, *BPP*, 1961, p. 46, “the instinct to return to the inanimate state”.

77) 한강, 『채식주의자』, 190~191쪽.

비례해서 쾌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영역을 넘어 완벽한 안정성에서 이탈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불쾌감을 맛보게 된다”⁷⁸⁾고 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항상성의 원칙”⁷⁹⁾에 따라 완벽한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쾌락원칙이며, 이것은 또한 “현실원칙”⁸⁰⁾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인간이 쾌락원칙을 추구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성의 규칙에 위배되는, 고통의 기억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전까지 프로이트는 꿈을 소원성취(wish fulfillment)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의 기억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트라우마 환자들을 보며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죽음충동이라 불렀다.⁸¹⁾

이는 훗날 라캉의 죽음충동 개념으로 발전되는데, 프로이트의 죽음충동과 라캉의 죽음충동 개념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에반스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죽음충동의 차이점을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은 모든 생명체가 태초의 무생물 상태로 되돌아가려 하는 근본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생물학과 연관된다. 하지만 라캉의 죽음충동은 생명체가 무생물 상태로 되돌아가려 하는 생물학과는 구분되며 자연이 아닌 문화와 연관된다. 둘째,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은 성충동과 배치되는 개념이지만, 라캉은 모든 충동은 쾌락원칙을 넘어서 주이상스의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충동은 죽음충동”⁸²⁾이라고 주장하며 죽음충동과 성 충동을 배치되는 개념으

78) Sigmund Freud, *BPP*, 1961, p. 5, “every psycho-physical motion rising above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 is attended by pleasure in proportion as, beyond a certain limit, it approximates to complete stability, and it attended by unpleasure in proportion as, beyond a certain limit, it deviates from complete stability”.

79) *Ibid.*, p. 6, “the principle of constancy”.

80) *Ibid.*, p. 7, “the reality principle”.

81) See *Ibid.*, pp. 10~39; Sean Homer, *op. cit.*, p. 89.

82) Dylan Evans, *op. cit.*, pp. 33, “every drive is virtually a death drive”.

로 보지 않는다.⁸³⁾ 이를 정리하면 프로이트와 라캉 모두 죽음충동을 이야기하지만, 프로이트는 모든 욕망이 거세되어 생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죽음충동을, 라캉은 욕망을 극단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주이상스적 죽음충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나무불꽃」에서 영혜가 보이는 충동은 생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에 가까운데, 프로이트의 죽음충동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쾌락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죽음충동’이라고 했으며 생명의 주된 목표는 죽음을 향한 바른 길을 찾는 것”⁸⁴⁾이라고 했는데 이는 본능에 대한 프로이트의 사유에서 기인한다. 프로이트는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내적인’ 이유로 인해서 죽는다 - 다시 한번 무기물이 된다 - 는 것을 예외 없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죽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⁸⁵⁾며 “본능은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려는 유기적 생명체에 내재한 어떤 충동인 것처럼 보인다”⁸⁶⁾고 정리한다. 즉, 본능을 변화와 발전을 향한 추진력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생명체가 생명을 획득하기 이전 상태인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보수적 성격의 표현”⁸⁷⁾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특성들이 그 성격을 잘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과거

83) See Ibid., pp. 32~33.

84) Sean Homer, op. cit., p. 89, “Freud called this beyond of pleasure principle ‘the death drive’ and suggested that the primary purpose of life is to find the correct path to death”.

85) Sigmund Freud, *BPP*, 1961, pp. 45~46, “If we are to take it as a truth that knows exception that everything living dies for internal reasons - becomes inorganic once again - then we shall be compelled to say that ‘the aim of all life is death’……”.

86) Ibid., p. 43, “It seems, then, that an instinct is an urge inherent in organic life to restore an earlier state of things”.

87) Ibid., p. 43, “an expression of the conservative nature of living substance”.

어느 때가 무생물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 그때까지 무생물체였던 것 속에 생겨난 긴장은 긴장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본능, 즉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생기게 된 것이다.

The attributes of life were at time evoked in inanimate matter by the action of a force of whose nature we can form no conception, …… The tension which then arose in what had hitherto been an inanimate substance endeavoured to cancel itself out. In this way the first instinct came into being: the instinct to return to the inanimamte state.⁸⁸⁾

이와 같이 생명 이전의 무기체로 돌아가려는 생명체의 보수적 성격에 주목한 프로이트는 죽음충동이 불교의 “열반원칙”⁸⁹⁾ 개념과 부합한다고 보았는데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열반이란 “고통도, 욕망도, 자아에 대한 감각도 없는 불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상태로, 주체는 업보와 윤회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불교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⁹⁰⁾라고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열반원칙은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적 에너지의 총합이 영(0)이 되고자 하는 경향”⁹¹⁾으로, 문학비평용어사전에 따르면 “내외부의 자극에 의해 초래된 긴장 상태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소멸시키려는 경향”⁹²⁾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은 라캉의 개념과는 달리 생명 이전의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생명체의 보수적 본능, 고통과 욕망 등

88) Ibid., p. 46.

89) Ibid., p. 67, “nirvana”.

90) Oxford Dictionary,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nirvana>, 2017.01.02), “nirvana: (in Buddhism) a transcendent state in which there is neither suffering, desire, nor sense of self, and the subject is released from the effects of karma and the cycle of death and rebirth. It represents the final goal of Buddhism”.

91) Oxford Reference,

(<http://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10105505456>, 2017.01.02), “nirvana principle: In psychoanalysis, the tendency for the quantity of energy in the mental apparatus to reduce to zero”.

9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 498쪽.

모든 인간적 감정과 감각에서 벗어나 모든 에너지가 0인 무(無)의 상태가 되려 하는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채식주의자』의 영혜가 겪는 죽음충동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의사선생님하고 얘기했어, 언니?

.....

나, 내장이 다 퇴화됐다고 그러지, 그치.

.....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

.....

영혜는 눈을 빛냈다. 불가사의한 미소가 영혜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언니 말이 맞아..... 이제 곧,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거야. 금방이야.

영혜는 ㅋㅋ, 웃음을 터트리고는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금방이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⁹³⁾

앞서 형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의 원인과 치유 방법을 깨달은 영혜는 스스로 식물이 되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하는데, 이는 곧 프로이트가 말한 생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 죽음충동과 연관된다.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硬直)된 채로 대사(代謝)라는 식물적 기능만을 하는 인간⁹⁴⁾을 식물인간(vegetative state, 植物人間)이라 칭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 먹지도 않고, 말도, 생각도 사라지는 식물적 상태란 곧 죽음충동에서 말하는 무생물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혜는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이라고 단순히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제 곧,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거야”라며 생명

93) 한강, 『채식주의자』, 186~187쪽.

94) 두산백과: 식물인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8525&cid=40942&categoryId=32783>, 2017.01.03).

이전의 상태가 되려 한다. “……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 내 몸에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돌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없어. 물이 필요한데”⁹⁵⁾라며 이미 스스로를 식물로 여기는 영혜는 생명 연장을 위한 조치를 거부하고 욕망, 고통 등 모든 종류의 인간적 욕구에서 벗어나 점차 0의 상태로 소멸해가며 “무생물의 정지 상태”⁹⁶⁾가 되고자 한다. 그것만이 섭생을 해야만 하는 인간의 트라우마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Ⅲ. 나오며

이렇게 작품은 식물이 되고자 하는 영혜의 극단적인 죽음충동을 보여 주며 어떠한 뚜렷한 결론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마무리된다. 영혜에게 닥칠 죽음을 예견할 뿐이다. 하지만 트라우마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왜 이 작품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영혜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섭생을 해야만 하는 인간 삶 자체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이다. 한강은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없는 영혜에게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연 상징계에서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의 섭생이 요구하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거부하는 영혜에게 식물이 되는 것 외에 조화로운 해결책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강은 이러한 문제가 영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

95) 한강, 『채식주의자』, 180쪽.

96) Sigmund Freud, *BPP*, 1961, p. 76, “the quiescence of the inorganic world”.

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혜의 트라우마는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체의 죽음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생명 유지의 본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혜의 트라우마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것, 존재 안에 내제된 본질적인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영혜의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야기로 확장된다.

여기서 트라우마는 몰랐던 의미를 깨닫는 진실의 문제라는 표현이 다시 한 번 울림을 갖게 된다. 이 작품은 영혜가 트라우마에 걸리고, 그 원인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한강은 우리 모두 그 진실에 눈을 뜨고, 다른 생명체와 그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성에 대해 공통의 책임 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들도 또한 영혜의 트라우마를 함께 공유하며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혜의 트라우마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이다.

• 참고문헌

<자료>

1. 원자료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 기타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8525&cid=40942&categoryId=32783>,
2017.01.03).

Oxford Dictionary, (<https://en.oxforddictionaries.com>, 2017.01.02).

Oxford Reference, (<http://www.oxfordreference.com>, 2017.01.02).

<연구논저>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251~281쪽.

방정민, 「한강 소설, 『몽고반점』 연구: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에로티시즘과의 상관관계 연구」, 『용봉인문논총』 45, 2014, 59~89쪽.

선 호머 저,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2013, 451~481쪽.

이찬규·이은지, 「한강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46, 2010, 43~67쪽.

- 정미숙, 「욕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욕망분석」, 『코기토』 5, 2008, 7~32쪽.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
-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 -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43, 2008, 289~317쪽.
- 허윤진, 「해설: 열정은 수난이다」,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22~244쪽.
- Caruth, Cathy, “Recapturing the Past: Introduction”,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p. 151~157.
- _____, “Trauma and Experience: Introduction”,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p. 3~12.
- _____,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Freud, Sigmun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James Strachey, Trans. and Ed.,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61.
- _____, *Moses and Monotheism*, Katherine Jones, Trans., New York: Vintage, 1955.
- Homer, Sean, *Jacques Lac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J.-A. Miller, Ed., Alan Sheridan, Trans., New York and London: Norton & Company, 1998.
- Laub, Dori, “Truth and Testimony: The Process and the Struggle”,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p. 61~75.

Van Der Kolk, Bessel A. and Onno Van Der Hart, “The Intrusive Past: The Flexibility of Memory and the Engraving of Trauma”,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Cathy Caruth, 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p. 158~182.

Zizè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New York: Verso, 2008.

Eating and Trauma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ho, Yoon Jung*

Han Kang's trilogy *The Vegetarian*, composed of "The Vegetarian," "Mongolian Mark," and "Flaming Trees," has been examined by critics mostly from the eco-feminist perspective. This approach, however, can oversimplify various discourses in *The Vegetarian* by employing dichotomies such as: male vs. female, meat-eating vs. vegetarianism, and violence vs. non-violence. Yeong-hye has been previously interpreted as a victim of physical and ideological violence, who refuses to eat meat and tries to become a tree in protest against the oppressive masculine and patriarchal system. This paper, however, aims to present another aspect of the novel by adopting a trauma theory. The trauma theory shows that Yeong-hye can also be a perpetrator in the fundamental dimension of human beings who must take something from natural environments as it focuses on Yeong-hye's trauma created from her guilt. In this respect, *The Vegetarian* fundamentally deals with human violence in general as well as ideological problems.

This paper analyzes Yeong-hye's trauma represented in *The Vegetarian* through Cathy Caruth's trauma theory characterized by the five stages; shock, incomprehensibility, incubation period, repeated dreams or hallucinations, and awakening. This article also explains the meaning of and the reason for Yeong-hye's becoming a tree in the coda by applying Sigmund Freud's

* Ph.D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Death Drive theor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Vegetarian* shows not only Yeong-hye's personal problems but the universal truth that all human beings are living at the sacrifice of other creatures. When readers share her trauma and take the joint responsibility,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her trauma.

Key words: Han Kang, *The Vegetarian*, Trauma, Cathy Caruth, Sigmund Freud, Death Drive

필자 E-Mail: clozetoyou@naver.com

투고일 2017년 01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1월 26일